

K-원전, 글로벌 공급망에 올라탄다!

- 10.27~29 경주에서 ‘국제 원자력수출 및 안전 콘펙스’(NES 2026) 개최 -
- ‘한-미 원전 프레임워크’ 후속 기회 모색을 위한 미국 원전 설명회 · B2B 상담회 진행 -

국내 원전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과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모색하는 국제 원자력 종합 행사가 10.27(화)~29(목) 3일간 경주화백컨벤션센터(HICO)에서 개최된다. 산업통상부(장관 김정관, 이하 산업부)가 후원하고 한국원전수출산업 협회(KNA)와 HICO가 공동 주관하는 「NES 2026(2026 국제 원자력수출 및 안전 콘펙스)*」이 올해로 세 번째 행사를 맞이하였다.

미국, 프랑스, 캐나다, 베트남, 체코 등 국내외 원전 관련 기업 120개사가 참여하고 3,000여 명에 달하는 원전 산업 관계자가 참석하여 K-원전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높은 관심과 협력 열기를 입증했다. 특히, 금년 행사는 ‘글로벌 원자력 공급망을 이끌다’라는 주제로 개최되어 최근(10.1) 발표된 ‘한-미 원전 프레임워크’의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 사업의 후속 기회를 비롯하여 K-원전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‘컨퍼런스’, ‘상담회’, ‘전시회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.

* NES 2026 : Nuclear Export and Safety Confex (국제 원자력 수출 및 안전 콘펙스)

- ‘26.10.28(수) 10:30, 개막식 개최 (산업부 강감찬 무역투자실장, 김동철 KNA 회장(한전 사장), 최영숙 경북 환동해지역본부장, 주낙영 경주시장, Joe Orgeron 美 루이지애나주 의원, Carl Coe 前 美 에너지부 비서실장, Cao Hoai Duong 베트남 PVN 부사장 등 참석)

먼저 ‘컨퍼런스’는 △AI 확산에 따른 원전의 중요성, △SMR의 미래와 진출 기회, △해외 공급망 참여 경험 공유 등을 주제로 27·29일 양일간 개최된다. 특히, ‘미국 건설 사업 설명회’(27일 오전), ‘미국 대형원전 공급망 참여 기회’(29일 오전)는 최근 발표된 ‘한-미 원전 프레임워크’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진출 기회를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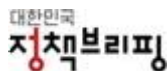
‘B2B 수출상담회’는 해외 바이어 55개사, 국내 중소·중견기업 70개사가 참여하여 27~28일 양일간 개최된다. 일회성 미팅이 아니라 실제 수출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전 의향조사를 거쳐 기업별 상담 시간표가 짜여진 1:1 수출 상담회 형식으로 진행된다. 특히, 테라파워(미국), EDF·프라마툼(프랑스), 옻킨스레알리스(캐나다), PVN(베트남) 등 전 세계에서 주요 핵심 앵커기업들이 바이어로 참석하였다.

‘전시회’에서는 국내외 77개 기업·기관이 182개 부스를 운영한다. 국내 원전 기자재·EPC 등 대기업·공기업 외에도 팀코리아 공동관(4개사), SMR관(10개사), 수출 첫걸음 기업관*(18개사) 등 다양한 기업 연합 형태로도 참여하여, 전주기에 걸친 K-원전 기업들의 수출 역량을 전 세계에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.

* 원전 수출 첫걸음 사업 : ‘27년까지 수출 역량을 보유한 중소·중견기업 100개사 육성을 목표로 하는 산업부와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의 수출 지원 사업

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개회식 축사를 통해 “AI·기후대응에 따른 원전의 수요 확대와 ‘한-미 원전 프레임워크’에 따른 미국 등 글로벌 수출 기회를 통해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‘대(大)원전수출시대’의 막이 올랐다”고 선언하고, “원전 수출은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‘100년 비즈니스’인 만큼, 정부와 우리 산업계가 하나의 ‘팀 코리아’로 힘을 합쳐 전 세계 원전 공급망을 선점해 나가자”고 강조했다.

담당 부서	원전전략기획관 원전수출진흥과	책임자	과 장	이상은 (044-203-5330)
		담당자	주무관	서주형 (044-203-5334)



참고

NES 2026 프로그램

공동

KNA

HICO

구분	시간	1일차 (10.27, 화)	2일차 (10.28, 수)	3일차 (10.29, 목)
주요 행사 및 컨퍼런스	오전	[KNA] 미국 원전 건설 사업 설명회 - 미국 원전시장 구매·조달 체계 및 국내기업 참여 기회 소개 - 발표기관 : Glenn Davis Strategy, 美 프라마툼, 두산에너지빌리티, KNA 등	[공동] 개막식 - 개회사 (협회장) - 환영사 (경주시장) - 축사 (산업부, 경북도) - 기조연설 (두산에너지빌리티, OECD NEA) [HICO] 내빈 오찬 - 참석 : 내빈 약 50명 - 경북도/경주시 후원 - 장소 : 본관 4층 라운지	[KNA] 컨퍼런스 Ⅱ 해외 원전사업자의 글로벌 공급망 협력 - 美 대형 원전 프로젝트 참여 기회(美 Framatome) - SMR 프로젝트 참여 기회 (X-Energy, TerraPower)
	오후	[KNA] 컨퍼런스 Ⅰ. 원자력 파트너십의 미래 - 원자력 확대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 - 정부간 협력에서 산업 동맹으로의 확대 - SMR 중심의 다자 생태계 협력 확대 - Hyperscaler와 원자력	[HICO] 세계원전도시서밋 (WNCS) - 주관 : HICO(경주시) - 원전을 보유 또는 도입 계획(예정)인 도시 관계자 초청, 경험 공유	[KNA] 컨퍼런스 Ⅲ 한국의 준비된 공급망 - UAE 프로젝트 경험 - 대형/SMR 국내외 사업경험(두산) - 해외 프로젝트 경험 사례 (첫걸음자원기업 3개社)
	저녁	[KNA] 환영만찬 - 국내외 인사 약 180명 - 장소 : 힐튼호텔 경주	[HICO] 네트워킹 파티 & NES Awards - 국내외 인사 200여명 - 장소 : 힐튼호텔 경주 - 시상식 병행 (3개 부문)	
전시		[HICO] 전시회 참가업체 70개社, 참관객 3,000명 규모		
B2B 미팅	전일	[공동] 해외 바이어 B2B 수출상담회 - 해외 바이어 : 약 55개사(미국, 베트남, 튀르키예, 캐나다 등) - 국내기업 : 약 70개사		[HICO] 해외 참가자 대상 산업시찰(B2B) - 두산에너지빌리티 창원공장
			[KNA] 해외 참가자 대상 산업시찰 (해외 연사) - 한수원 서울본부	
NES 연계 행사		(1) IAEA Interregional Workshop (10.26~10.30) (2) WiN Korea 기술포럼 (10.27)		
동시 개최 행사		2026 한국원자력학회 추계학술발표회 (10.28~10.30)		